

“가도 아미타 앉아도 아미타 아빠도 떠나지 않겠네”

<29> 선사(禪師) 문하의 거사들(10)

조사선(祖師禪)의 가치가 활발하게 펼쳐지면서 방은(龐蘊), 육근(陸冑), 배후(裴休) 등의 뛰어난 거사들이 출현하고, 거의 동시대에 민중시인으로 유명한 백거이(772-846) 역시 거사불교의 역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

백거이 거사는 자(字)는 낙천(樂天), 태원(太原)의 하규(下邳)사람이다. 거사는 가난한 하급관료 집안의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매우 총명해 시(詩)에 능했다. 정원(貞元) 3년(787) 16세의 소년으로 수도인 장안(長安)에 당시 유명한 시인을 찾아가 자신의 시를 보여주려고 했다. 시인은 초라한 행색과 ‘머리가 쉽다[居易]’는 의미인 거사의 이름을 보고, “장안의 쓸쓸이 비싸므로 머리가 쉽지 않겠네! [居住不易]”이라고 말했다. 거사의 시를 읽고 난 후 시인은 “이러한 시구(詩句)를 능히 쓰니, 머리가 어렵지 않겠다[居易]”라고 말하면서부터 거사의 이름은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거사는 중년에 이르러 점차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40세에 모친을 여의고, 이듬해에 어린 딸마저 잃게 된다. 이로부터 거사는 더욱 불교에 심취하게 됐다. 거사는 성품이 강직해 항상 직언(直言)을 했고, 정치와 사회를 비판하는 시들을 썼다. 결국 고관들의 미움을 사서 구강(九江)의 사마(司馬)로 좌천됐다. 팽제청의 <거사전>에 따르면, 이러한 좌천은 오히려 거사에게 더욱 불전(佛典)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했고, 더욱이 구강은 역대로 뛰어난 고승이 많았던 여산(廬山)과 인접해 이 시기에 많은 선덕(禪德)들과 교류했다고 한다. 현종(憲宗)이 죽고 목종(穆宗)이 즉위하면서 다시 거사를 중앙으로 불러 중용하자 거사는 신명을 바쳐 임무를 다하고자 전력한다. 그러나 권력다툼에 회의를 느껴 거사는 항주(杭州)태수를 자청했다.

항주태수 시절 거사는 아름다운 항주의 풍광과 수많은 지기들을 만나 시세계가 더욱 풍부해져 유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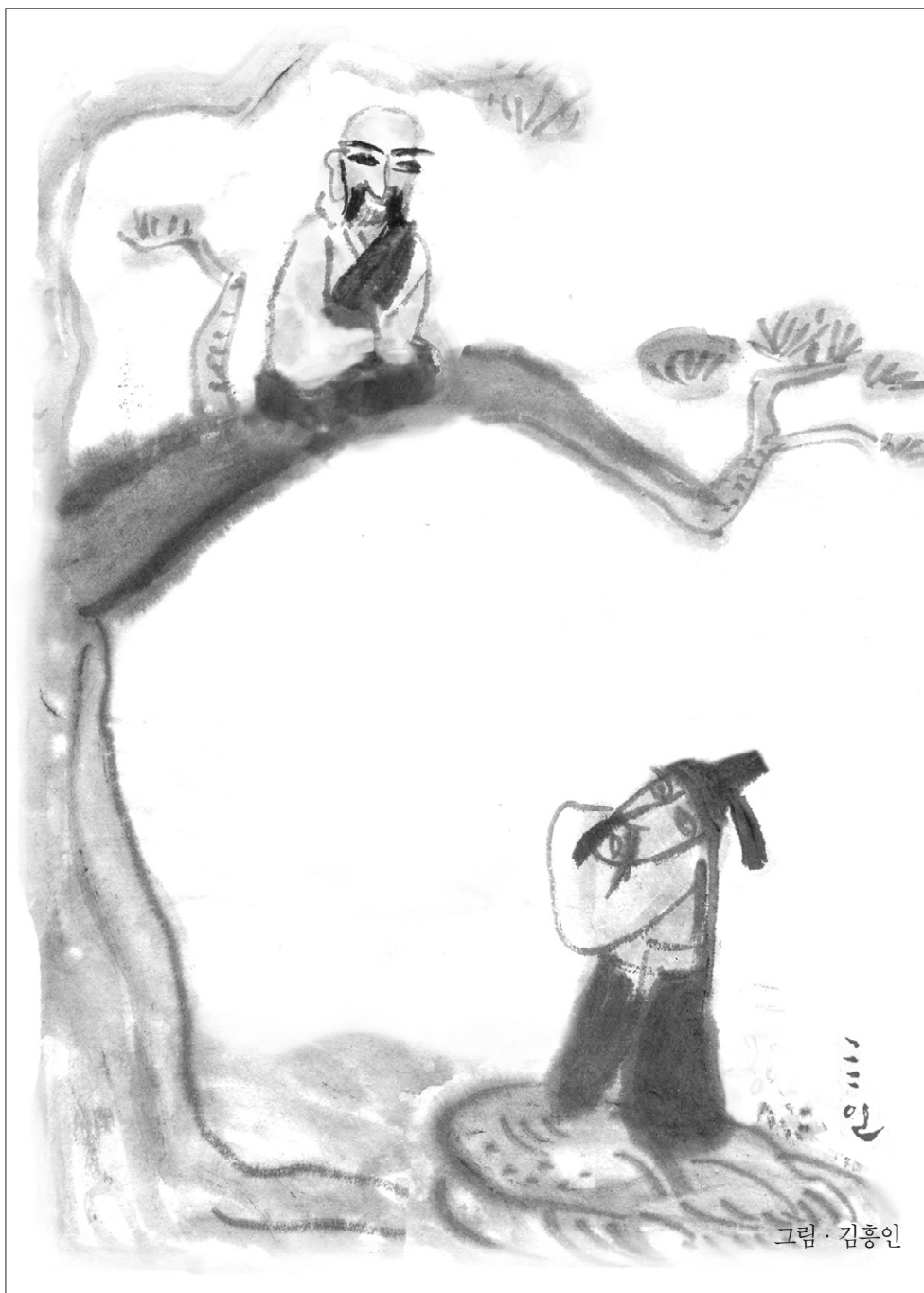


그림 · 김홍인

보시해 향산사(香山寺)로 만들고 여만 선사를 모셨으며, 자호(自號)를 ‘향산 거사’라고 했다. 거사는 여만 선사를 극진하게 모셨으며, 임종시에 가족들에게 여만 선사의 묘탑 옆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유언할 정도로 각별한 사제의 정을 가졌다.

거사는 향산사에서 여만 선사와 함께 ‘향화사(香火社)’를 결(結)한다. 이는 ‘정토결사(淨土結社)’이다. <거사전>에 따르면, 이에 앞서 거사는 태화(太和)년간에 동도(東都) 장수사(長壽寺)에서 승속 140인과 미륵상생도(彌勒上生圖)를 그리고, 함께 도솔내원(兜率內院)에 왕생하기를 발원했다고 한다. 또한 거사는 3만 전(錢)을 보시해 화공에게 서방의 극락세계를 그려도록 했는데, 높이가 9척(尺: 2m 10cm)이고, 넓이가 1장(丈) 3척(3m 90cm)이며, 아미타불을 주존(主尊)으로 해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좌우로 협시했고, 백만(人天)이 둘러싸 공경하는 모습을 나타냈으며, 누대(樓臺)는 칠보 등으로 경전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장엄했다고 한다.

명대(明代) 공귀(公貴)가 편찬한 <연방시선(蓮邦詩選)>에 실린 거사의 <염불계(念佛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 나이 일흔 하나인데, 다시는 풍월로 일삼지 않으리. 경전을 보자니 안력(眼力)만 소모되고, 복을 짓자니 세파에 휩쓸릴까 두렵네. 그렇다면 무엇으로 심안(心眼)을 제도할 것인가? 한 구절 아미타가 있도다. 가도 아미타, 앉아도 아미타, 바쁘기가 화살 같아도 아미타를 떠나지 않겠네. 달인(達人)들은 분명 나를 보고 웃으며 아미타를 뿌리치겠지. 통달하면 어찌 되고, 통달치 못하면 또한 어떤가? 통달하고 통달하지 못함을 말하지 말고, 모름지기 아미타불만 염하리.”

이와 같이 거사는 선가(禪家)의 법을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정토(淨土)에 상당히 전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마도 구강에서 사마의 직책을 역임하는 기간에 여산 동림사(東林寺)의 동진 해원(慧遠) 스님으로부터 시작된 중국 최초의 정토결사이며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연화사(蓮華社)’에 입사(入社)한 사람들과 교류했던 영향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거사의 시가 다른 시인과는 달리 보다 민중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볼 때, 아마도 선, 더욱이 홍주종의 격외(格外)의 활달하고 난해한 선을 민중들이 이해하지 못할까 오히려 정토에 더욱 치중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거사의 법맥은 여전히 선가(禪家)에 편입시키고 있으며, 상당히 많은 후대의 선종 문헌에 거사가 등장하고 있다. 이는 어쩌면 후대에 선종이 ‘선정일치(禪淨一致)’의 기치 아래 점차적으로 정토와 혼합했던 것에 기인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거사가 선으로부터 정토에 들어간 선반(先範)을 보였다고도 평가할 수 있다.

■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민중시인 백거이 거사 항주태수 시절 도림 선사 만나 “임종시 여만 선사 묘탑 옆에 묻어달라” 사제 정 ‘각별’

거사는 정원(貞元) 14년(798) 진사에 합격해 원화(元和) 2년(807)에 한림학사(翰林學士)를 시작으로 좌승유(左拾遺), 항주(杭州)자사, 소주(蘇州)자사 등으로부터 비서감(秘書監), 하남윤(河南尹), 형부상서(刑部尙書) 등의 고위관직을 역임했다.

거사의 전기에는 거사가 시를 쓰고 난 후, 항상 글을 모르는 할머니에게 읽어주어 능히 이해되는가를 물었다고 전한다. 그 때문에 거사의 시는 대체적으로 평이해 여러 비평가로부터 속되다는 혹평을 받기도 했지만, 도리어 일반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거사의 생존시 이미 그의 시는 일반 서민들의 입에 오르내렸고, 식당이나 여염집 담벽에 써 붙여지기도 했다. 거사의 현존하는 작품 수는 약 3800여 수이고, 그 가운데 <장한가(長恨歌)>, <비파행(琵琶行)> 등은 불멸의 걸작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전하는 그의 작품집은 <백사장경집(白居易集)> 75권 가운데 71권이 있고, <백향산시집(白香山詩集)> 40권도 있다.

거사는 이백(李白)이 사망한 지 10년 뒤, 두보(杜甫)가 사망한 지 2년 뒤에 태어나 같은 시대의 한유(韓愈)와 더불어 당대(唐代)의 4대 시인이라는 의미인 ‘이두한백(李杜韓白)’으로 병칭된다.

한 <비파행> 등을 쓰게 됐다. 또한 이 시기에 불교에 더욱 깊은 인연을 만나게 된다. <거사본등록>에는 항주 태수 시절인 원화(元和) 15년(820)에 조과도림(鳥窠道林) 선사와의 만남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거사가 조과도림 선사를 참알해 물었다. “선사가 머무는 곳이 너무 위험합니다.” 도림 선사는 “태수가 더욱 위험합니다.”라고 하자 거사는 “제자는 진강산(鎮江山)에 있는데, 어찌 위험하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선사는 “살나무와 불이 서로 만나듯이 직성(直性)이 멈추지 않으니, 어찌 위험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했다. 거사가 다시 “무엇이 불법의 대의(大義)입니까?”라고 묻자, 도림 선사는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못 선을 받들어 행하라. [諸惡莫作, 衆善奉行]”라고 했다. 그러자 거사는 “세살 먹은 아이도 아는 것을 어찌 말하십니까?”라고 항변했고 선사는 “세살 먹은 아이도 말할 수 있지만, 팔십 노인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이에 거사는 예를 갖추었다.

이는 <경덕전등록> 권4 항주조과도림선사전에도 실려 있고, <대해보각선사어록> 등 여러 어록과 <오동회원> <지월록> 등 공안집에도 실려 있다. 도림 선사는 ‘새둥우리(鳥窠)’라는 외호가 말해주듯

이 높은 나무위에서 좌선을 즐겨했다. 그에 따라 거사가 보기에 위험하다고 말하자 도림 선사는 온갖 번뇌망상이 마치 살나무에 불이 붙은 듯하니, 도리어 거사가 위험에 처해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또한 불법의 대의를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못 선을 받들어 행하라”는 이른바 ‘칠불통계(七佛通戒偈)’의 앞부분을 말하면서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거사가 마음 깊이 받은 선사는 마조(馬祖) 선사의 사법(佛法)인 불광여만(佛光如滿) 선사였다. <경덕전등록> 권10에는 마조의 사법인 불광여만 선사의 제자로 유일하게 거사를 들고, 거사의 전기를 실고 있다. 관련된 자료로부터 거사가 여만 선사

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법을 받았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다만 <경덕전등록>의 여만선사 전기에 선사가 동도(東都) 선사로부터 ‘팔참지목(八漸之目)’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고, <거사본등록>의 백거이 거사전에 동도(東都) 선사의 ‘관(觀) 각(覺) 정(定) 혜(慧) 명(明) 통(通) 제(濟) 사(捨)’의 여덟 조목과 그에 대한 설명이 나타난다. 하지만 그 설명들에서는 이른바 마조 선사 홍주종 계통의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 ‘즉심시불(即心是佛), 무심시불(無心是佛)’의 활달한 기상은 잘 보이지 않는다.

거사는 만년에 형부상서를 끝으로 관직에서 물러나 낙양(洛陽) 향산(香山)에 머물면서 자신의 집을

<p>불자 정보 722호 TEL 02) 2004-8219(直) 732-1522 FAX 02) 737-0696</p>	<p>사찰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충북 영동 시내 ● 대지 57평, 법당 18평(독립체), 묘사 20평(심야보일러) ● 시내중심권, 큰 길변 ● 가액: 2억 절충가 ● 스님 사정상(유학) 양도 <p>010-7325-1259</p>	<p>포교원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경기도 일산 탄현동 상가 4층 중 3층 ● 평수: 약 70평 ● 법당 30평, 방 3, 주방, 대청, 주차장 ● 보증금 2천만원/월 100만원 시설비 1300만원 ● 현재 포교 성업중 ● 지방 이전 관계로 양도 <p>031)941-0516</p>	<p>포교원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경기도 하남시 도로가 건물, 바로앞 버스정류장 ● 평수: 약 30평 ● 법당 약 25평, 묘사 10평 ● 교통 매우 편리, 즉시법회가능 ● 전세 4천만원 ● 시설비 1500만원 <p>010-9411-5302</p>	<p>포교원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서울 성북구 정릉 3동 ● 평수 60평, 법당 20평 ● 방 3개, 마당있음 ● 모든 시설 갖춰져 있음 ● 목탄 오시면 즉시법회 ● 시설비+보증금 4,500만원 월 80만원 <p>02)916-2977 02)919-3332</p>	<p>포교당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서울 중랑구 망우동 ● 2층 50평 ● 대형 재래시장 주변 ● 법당 25평, 방 3, 주방, 주차가능 ● 보증금 2500만원, 월 75만원 시설비 약간(절충가능) ● 지방 이전 관계로 ‘급’ 양도 <p>011-9342-9794</p>	<p>사찰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산 122-6 ● 임야 2315㎡ ● 대지: 등기건물평수(45평) ● 법당, 묘사, 절경실, 승방, 화장실, 신도숙소(등기건물)의 건물 약 30평) ● 가액: 2억 9천만원 <p>019-379-9999</p>
<p>포교원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대구시 동구 ● 3층 건물 중 3층 전체사용 ● 법당 70평, 묘사 30평, ● 공양간 10평, 휴식공간 30평 ● 사무실 1, 방 6개 시설 완비 ● 보증금 3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상당후 절충 <p>010-4199-0047</p>	<p>팬션같은 암자 토굴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문경시 문경읍 관음리 ● 대지 250평, 건물 25평 ● 황토벽돌, 기와지붕, 목욕탕 ● 수세화장실, 심야전기보일러 ● 가액: 방문 답사 후 결정 ● 매수자가 법당 지을시 법당터 무상보시(스님들 한해서) <p>010-3169-5364</p>	<p>포교원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부산 북구 최고의 위치 지하철 바로 앞, 대로변 ● 평수: 약 70평 6층 건물 중 6층 옥상이용 주차관리 ● 보증금: 6000만원(조정가능) 월세(조정가능) ● 불교대학 운영중 <p>011-704-1429</p>	<p>절부지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용인시 남사면 소재 ● 대지 50평, 시유지 48평 ● 도로접, ● 건축물허가 40평 ● 가액: 7천 5백만원 <p>010-9915-5788</p>	<p>포교당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전남 광양시 광영동 명진사 ● 특징: 약 50평, 삼존불 외 모든 시설 갖춰져 있음 ● 목탄 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500만원 ● 꼭 하실분 연락바람 <p>010-3163-5014</p>	<p>포교당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서울 중구 신당동 (중앙시장 맞은편) ● 평수: 약 20평 ● ※ 자리 중에 자리! ● 최고의 위치(역학상당) ● 보증금 1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1700만원 <p>010-3725-2137</p>	<p>포교당(급)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부산 신만덕 부근 (아파트주택 밀집지역) ● 총 35평(2층) ● 방 3, 주방 1, 법당 시설 완비 ●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2000만원 / 월 35만원 (시설비 답사후 절충가능) 양도가능 <p>010-4411-4108</p>
<p>포교당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금정구 금사동 금사초등학교앞 ● 평수: 법당 29평, 묘사 2방 2칸, 부엌 1칸, 친견실 1칸, 시설 완비 ● 보증금 500만원 월 32만원 (시설비 별도) <p>010-8513-2357</p>	<p>사찰 암자터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지방도로 접 ● 국유지내 맑은물 흐르는 계곡 접한 ● 다목적 전 2,000평과 전 900평을 ● 평당 4만원 <p>011-538-2211 시방사 주지 덕월</p>	<p>사찰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경북 영주시 ● 사글세 1년 1,500,000 (백옥십만원) 전세도 가능 ● 방 5개, 주방, 욕실, 법당, 산신각 ● 영주제일고등학교 건너편 산에 위치한 금묘사 ● 시내인근지역이므로 교통편리하고, 위치가 좋음 <p>011-9370-7513</p>	<p>암자(급)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부산 서구 아미동 ● 월세(전세가능) ● 대지 92평/ 당산 별채 방 2칸 ● 법당 大, 방 大, 부엌, 텃밭, 에어컨 시설 완비 ● 보증금 1000만원/월 30만원(시설비 없음) ● 답사후 절충 가능, 매매 가능 <p>017-552-1960 016-561-6865</p>	<p>도심속 사찰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부산광역시 수영구 ● 대지: 50평 ● 법당: 21평, 2층 ● 목조신축 2년, 단청필, 삼존불(동불), 각단탱화, 108호신불(동불), ● 묘사 30평 1층, 즉시법회가능 ● 가액: 2억 1천만원 (웅자 8천포환) <p>010-8642-6797</p>	<p>사찰 대여 하실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서울, 경기, 강원, 충북소재 ● 산사사찰로 법당과 묘사채등이 갖춰져 있지만 포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찰로 불사 성공과 유명 사찰이 되기를 원하는 장경스님 또는 장경불자님 ● 조건: 2009년 불사준비기간이 끝나면 2010년 정월달부터는 매월월세를 지급하겠습니다. 2011년에는 사찰양도 금액을 지급하겠습니다. ● 본회는: 유명불자회로 현재 1000명 이상의 회원이 있으며 회원불자들이 수행 기도하는 도량을 만들고서 분광고를 게재한 것이며 2011년내로 500명 이상이 기도 정진하는 큰도량이 될것입니다. <p>010-9346-1207</p>	